

文 공약 보따리 풀고 安 지지선언 이끌고 李 출퇴근 선거운동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민주 3후보 불꽃 튀는 ‘호남 공약’

더불어민주당 호남 경선을 앞두고 경선 후보 간 불꽃 튀기는 호남 공약이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20일 광주에서 광주·전남지역 공약 발표로 지지를 호소했다. 안희정 후보는 지역 대학교수와 변호사 등의 지지 선언을 잇따라 끌어냈고, 이재명 후보는 광주와 서울을 오가는 출퇴근 선거운동 등으로 호남 공약에 가속도를 냈다.

◇文, 공약으로 승부수=문재인 후보는 이날 광주·전남을 위한 맞춤형 공약 보따리를 펼쳤다. 첫 일정으로 5·18 당시 기총소사가 탄흔이 발견된 광주 금남로의 전일빌딩을 찾았고, 공약 발표 장소도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 건물 앞인 5·18 민주광장을 택했다.

그러면서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정신계승을 우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호남인재 등용 등 정치·정부적인 사안은 물론 광주·전남 정책 공약을 제시하면서 구애의 손길을 내밀었다. 그는 “저는 거제에서 태어났지만, 정치적 삶은 20대 청년 시절부터 광주와 함께였다. 호남을 대라는 질타가 가장 아팠다”면서 “호남에 대한 저의 존경과 애정보다 정권교체에 대한 호남의 열망이 더욱 깊고 절박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호남의 정권교체 열망에 보답하겠다. 두 번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지지를 거듭 호소했다.

문 후보는 이어 광주 KTX 승정역 회의실에서 금호타이어 하용대 노조위원장과 손기홍 수석부위원장과 노동자들을 만나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 고용보장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한 뒤 상경했다.

◇安, 지지선언 잇따라=광주·전남지역에서는 20일 안희정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 잇따랐다. 이는 호남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대세론을 꺾고 승기를 잡기 위한 세 확산으로 해석된다.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에 근무했던 김종선·장홍호씨 등 6명과 광주·전남 전·현직 교수 40명이 이날 민주당 경선에 나선 안희정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 지역과 세대, 이념을 초월해 통합과 번영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

文 “호남 홀대 질타 가슴 아팠다”

安, 교수·변호사 65명 지지선언

李, 文·安에 포문 전세 역전 시도

는 책임자가 안희정 후보라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지역의 30~40대 변호사 25명도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에 대한 소신을 지켜 온 안희정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청년 세대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갈 지도자로서 소통의 리더십과 능력을 겸비한 후보는 안희정 후보”라며 “광주정신을 계승하고 적폐청산과 민주주의 완성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할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 후보에 대한 지지를 통해 진정한 시대교체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단순한 지지를 넘어 대통합과 대개혁을 통한 시대교체의 감시자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李, 수도권-호남 강행군=이재명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호남 경선을 일주일 앞두고 ‘호남 출퇴근’ 선거운동을 통해 호남 민심 얻기 총력을 펴고 있다. 이 후보는 호남 경선이 끝나는 오는 27일까지 왕복 4시간의 출퇴근 생활을 이어가며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알릴 계획이다.

이 후보는 지난 19일 오후 광주 1913 송정역시장과 충장로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심 공약에 나섰다. 이 후보는 1913 송정역시장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를 비판하며 호남 대첩의 포문을 열며 전세 역전을 시도했다.

이어 문화전당 앞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농성장에서 1박을 한 뒤 이날 서울로 올라가 서울 일정을 소화했다. 그리고 다시 광주로 내려와 21일 광주학생운동기념회관을 방문하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 대통령 경선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뒤 22일에는 전북에서 광주·전남·전북을 아우르는 호남 발전 정책발표를 한다.

이어 전북지역 민생탐방을 이어가고 오후 6시에는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조를 방문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안희정 충남도지사(가운데)가 20일 오후 서울 수유리 국립 4·19 민주묘지를 방문, 일행과 이야기를 나누며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이재명 성남시장(오른쪽)이 20일 오후 서울 한국 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방문, 충무 김영주 목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200만명 넘었다

모집 마감 하루 남기고 203만874명…25일 ARS 투표 시작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마감(21일)을 하루 남기고 200만 명을 돌파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 현재 선거인단 등록 신청자 수는 203만874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권리당원과 대의원수는 19만5354명이다. 2012년 대선 후보자 경선 선거인단인 108만 명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후인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10일간의 2차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지난달 15일부터 모집해 이달 9일 마감한 1차 선거인단 모집에서는 총 162만9025명이 응모했으며 2차 선거인단 모집에서도 40만여 명이 등록한 셈이다.

민주당에서는 최종 목표였던 220만 명은 넘어서지 못하겠지만 21일 최종 마감까지 210만 명은 초과하지 않느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부터 ARS 투표가 시작, 27일 최종 결과가 발표되는 호남권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호남권이 민주당 전국 순회 경선의 첫 관문인데다 야권의 심장이라는 점에서 전체 경선 판세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5일 민주당이 공개한 1차 선거인단 명부에서도 강원·제주를 포함한 수도권(69만6491명·53%)을 제외하고는 호남권이 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바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삼성 뇌물·재단 모금·블랙리스트 핵심 쟁점

조사실 있는 1개층 통째 사용…보안에 만전

검찰 오늘 박근혜 소환조사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검찰이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관련 내용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 등을 반영해 신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조사 전날인 20일 오후 취재진과 만나 “내일 조문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 부분에 대해 질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중앙지검에서 조사에서는 ▲ 삼성 특혜와 관련한 뇌물 ▲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작금남용 ▲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재단에 출연한 것을 뇌물로 볼지 직권남용이나 강요로 볼지 결정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보든 먼저 ‘팩트 파인딩’이 중요하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이 중요하니 먼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 시간에 대한 “밤늦게까지 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면서 “심야 조사는 동의가 필요해 가능한 그 전에 조사를 마치고려고 노력하겠지만, 내일 가봐야 할 것 같다”며 길어질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면서 조사실이 위치한 서울중앙지검 1개 층의 외부인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며 보안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보



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0일 취재진과 만나 “21일은 (박 전 대통령) 조사실이 있는 해당 층은 물론 다른 층에서도 다른 소환 조사를 자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의 청사 방문을 최소화하고 조사실 주변은 사실상 박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비워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234-3222 Fax. (062)234-3141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JOY TOUR CO., LTD

http://www.joytour.kr

대표이사 최금환

봄특선 벚꽃구경~ 무안에서 떠나세요!

무안출발은 조이투어로~

관광·휴양·온천·체험·골프 여행은 무안국제공항에서 출발하세요~!!
일본여행/국내·제주여행/해외여행 전문여행사 조이투어 www.joytour.kr

항공왕복 복큐슈 2박3일 “봄” 상품 [매주 금요일 출발/3월 31일~6월 4일]

〈복큐슈 정통〉	벳부·유후인·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579,000원~
★한정특가★	3/31, 4/14 복큐슈 여행	1인	499,000원~
〈아마구치 정통〉	아마구치·하기·시모노세키·기타큐슈	1인	799,000원~
〈우레시노 정통〉	우레시노·가라초·후쿠오카·기타큐슈	1인	799,000원~
〈골프상품〉	기타큐슈 골프	1인	999,000원~
※ 골프상품 인센, 단독은 문의바랍니다. ※ 4/28, 4/30, 5/3, 5/5는 골든위크기간이므로 별도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항공/선박 편도 복큐슈 “봄” 상품 [매주 일·화·수요일 출발/4월 2일~6월 6일]

〈일요일 출발〉	3박4일 항공 + 선박 (선착순 한정 30명)	1인	399,000원~
〈화요일 출발〉	3박4일 선박 + 항공	1인	499,000원~
〈수요일 출발〉	2박3일 선박 + 항공	1인	399,000원~
〈올레길〉	산악회를 위한 큐슈올레길 2박3일	매주 수요일 출발	1인 399,000원~
〈항공/선박〉	후쿠오카 골프 36H 3박4일	1인	799,000원~

무안 → 다낭 전세기 “봄” 상품 [매주 수·토요일 출발/4월 19일~6월 24일]

1. 항공 + 에어텔	1인	749,000원~
2. 다낭·호이안·후에	1인	799,000원~
3. 다낭·후에·빛마·호이안트레킹	1인	849,000원~

항공·선박 왕복 제주도 “봄” 상품 [매일 출발/3월 24일~7월 20일]

〈광주〉	제주도 웰빙여행	1인	299,000원~
〈목포〉	선박왕복 제주도 여행	1인	189,000원~
※ 제주상품은 석식 2회, 옵션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입니다.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제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곳 조이투어

●공동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1억원,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경비없음(단,기차/기타드통사료,선박관광,각국 비자비용 별도) ◆최초 출발인원 : 상품에 따라 다름